

우승 포기하고 잘못 적은 스코어카드 사진 신고한 미국 고교생

스코어카드를 잘못 적어낸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실격당한 미국 고등학생 골프 선수가 화제가 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골프월드를 비롯한 미국 골프 매체는 이날 노스다코타주 수 폴스 크리스천고등학교 12학년 여학생 케이트 윈자가 주 클래스A 고교 선수권대회에서 실격당한 사연을 전했다.



▲수 폴스 크리스천고등학교 골프팀. 왼쪽에서 세 번째가 케이트 윈자

만 잘못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윈자는 하루 전 이 대회 최종 라운드를 마치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한 뒤 5타를 친 18번홀 성적을 '4'로 적어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윈자는 코치에게 먼저 알리고 대회 경기위원회를 찾아가서 잘못된 스코어카드를 제출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윈자는 선수권대회 우승보다 더 값진 보상을 받았다. 곳곳에서 정직함과 용기에 찬사가 쇄도했다.

수 폴스 크리스천 고교 골프부는 페이스북에서 "우리의 에이스 선수 케이트가 누구보다 자랑스럽다. 골프팀뿐 아니라 우리 학교 모든 운동선수에게 모범이 됐다." 고 밝혔다.

동료 선수들도 이 글에 이름을 올려 응원의 뜻을 표시했다.

윈자의 정직한 행동의 대가는 컸다. 경기위원회는 즉각 윈자에게 실격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윈자의 개인전 우승과 윈자가 소속된 수 폴스 크리스천 고교의 단체전 1위 역시 무효가 됐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윈자가 스코어카드를 제대로 적어냈어도 개인전 우승과 단체전 1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사우스다코타주 고교 골프선수권대회 맨 스와토스 경기위원장도 "인성과 골프 실력 모두 A+" 라면서 "내 자식들이 케이트처럼 정직하고 품격있게 자랐으면 좋겠다. 케이트, 너는 나의 새로운 영웅이다." 라는 글을 남겼다.

윈자는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잘못을 자진 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기에 정말 슬펐다. 팀 동료들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면서도 "하지

윈자는 "힘든 일을 겪었지만 내 주변에 나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멋진 일" 이라고 말했다.

르브론·커리 "우승해도 백악관엔 안 가"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가 우승 팀에게 주어지는 백악관 초대장을 거절했다.

6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르브론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퀸스 아레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NBA(미국프로농구) 파이널에서 누가 우승을 하든 백악관 초청을 원하지 않을 것" 이라며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물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역시 백악관에 가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NBA 파이널에서 우승한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은 백악관 초대장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골든스테이트의 커리 역시 르브론의 생각에 동의했다. 커리는 "르브론의 생각과 똑같다. 우리가 NBA 파이널에서 우승해도 백악관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 이라며 "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고 밝혔다.

는데, 르브론과 커리도 필라델피아 선수들의 뜻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르브론과 커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우승 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필라델피아 간판 선수들이 우승 후 잇달아 백악관 초청 행사에 불참 의사를 알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사 하루 전 초청을 취소했

NFL 선수들은 2016년 8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쿼터백 콜린 캐퍼닉이 경찰의 흑인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뜻으로 경기 전 국가 연주 도중 한쪽 무릎을 꿇은 것(사진)을 계기로 '무릎 꿇기 시위'에 동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연주 동안 자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대통령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며 비난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수들은 대거 백악관 초청행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고 백악관은 결국 초청행사를 취소했다.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비만약

효과가 너무 좋아 다이어트 주류사회 진출 준비로 새 디자인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Diet U! 20년 동안 인증되었고, 날씬한 몸매로 만들어 드립니다.



Review

1) 나는 닥터 최를 2년 전에 만나서 허리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닥터 최를 만나기 전 양방의사가 처방한 800mg 진통제를 매일 10알씩 먹고도 고통에 못 이겨 울었고 로보트같이 딱딱하게 되어 몸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었다. 닥터 최에게 일주일(2주) 2번(2주) 1번(3개월) 치료를 받고 몸이 너무 좋아져서 진통제를 완전히 끊었다. 비만약을 먹고 50파운드를 줄였다. 닥터 최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를... - Robert v.
2) 본인과 아내가 1병을 나누어서 약 3주정도 복용했는데, 처음엔 대변에서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면서, 배도 쓰르르, 차차 없어지며 지금은 너무 좋아졌음, 더이상 복용하지 않으며 매일 아침 쾌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전화바람, 친구에게 소개했는데 친구도 1병 복용하고 50파운드 감량. - Francis Lee



변비약

미국 내 4억명 이상의 인구가 변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변비 환자가 3배나 많습니다. 65세 이후의 사람들 중에 50% 이상이 변비로 고생합니다.

만병의 근원인 변비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을 치료합니다.

Review

비만과 심한 변비가 있었다. 관장을 하지 않으면 변을 보지 못했다. 내장 비만약과 변비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효과는 정말 놀라웠다. 그렇게 심하던 변비가 신기하게도 없어졌다. - Kwi Sook Kim



견비통

어깨통증은 어깨뼈가 바른 위치에 있지 않거나, 목이나 어깨, 대장, 소장, 폐 혹은 혈액 순환 장애에서 비롯됩니다.

Review

모든 약이 목과 어깨로 가서 풀어주고 늦게합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 통증약도 안듣고 저녁에 울고싶을 정도였는데, 약을 먹고 5일부터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한달만에 다 나았다. - 이인선 (작곡가 스타노래교실)



감기약

어지럽지 않고 콧물이 없으면서 3일 안에 감기 푼다

5일분 작은병 출시 \$25 (Tax 포함)

감기 초기에 먹으면 2-3일 만에 낫고 독감으로 발전이 안되며 콧물이 싹 마르고 몸이 쉬서서 직장에 결석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감기에 걸린다는 것은 피로하여 몸에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므로 일을 줄이고 잘자고 잘먹고 술, 담배 등을 삼가해야 합니다.

저희 병원 최고 인기약입니다.

목, 등, 허리, 어깨통증을 금방 낫게 해드립니다.

디스크 치료 전문



어혈약

떨리고, 멍기고, 수시는 증상은 다 어혈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손발이 찬 것은 혈이 안들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뜨끈뜨끈 해됩니다.

Review

1) Blood Stagnation 약을 한달가량 복용했는데 피검사 하시는 분께 몸관리 잘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몸관리 한 것은 전혀 없고, 약간 착실하게 복용했을 뿐입니다. 머리에 진통증 같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혈압약도 같이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전혀 없었고, 혈압증세도 없어졌습니다. - Casey Cho
2) 어혈, 독소제거약을 먹었습니다. 피를 매일 뽑았는데 몸이 좋아져서 이제 안 뽑습니다. 열개(하루 4번)를 먹었는데 금방 반응이 오고 좋아졌습니다. - 이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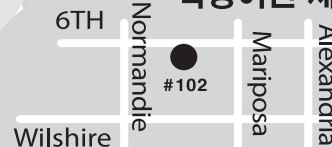
에너지약

온몸에 기운을 주고 약 복용 후 일주일 부터 힘이 난다.

Review

1) 아기를 낳아서 너무 지치고 짜증이 났었는데 기운이 나니 아기와 남편과 즐겁게 지낸다.
2) 유방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나면 구토 후에 기운이 확 빠졌는데 기운이 난다. - Ki Kim
3) 틀니 치료 후 먹지 못해 기운이 나고 이빨이 아파 밥맛도 없었는데 기운이 나고 밥맛도 났다. - 이명숙 (무용가)

확장이전 새 주소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

전화문의 213-381-8228

603 S. Mariposa Ave., #102 Los Angeles, CA 90005

모든 보험 PPO, HMO, 오바마케어, LA CARE, 메디케어 코리안 아메리칸 메디칼 그룹 카이저보험